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부산시내 중학생의 만족도 및 참여 독려방안

박종운 · 박인규 · 차철표[†]
(부경대학교)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 for Saturday Program in Busan

Jong-Un PARK · In-Kyu PARK · Cheol-Pyo CHA[†]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ctual status of Saturday program operation in Busan and explores the routes for acquiring information about the Saturday program and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operation with the subj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residing in Busan in order to develop efficient operation methods and also find ways to enhance the participation rate of the students.

Therefore, with the subjects of 569 first, second, and third graders at 3 middle schools located in Busan,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actual status of Saturday program operation in Busan to figure out the participation rate and satisfaction of the Saturday program, efficient operation methods for the Saturday program and ways to encourage participation in the Saturday program.

It is needed to install cooperative Saturday program support centers to be operated collaboratively by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the offices of education afterwards. And it is necessary to figure out which institution should take charge of the Saturday program according to the requests from teachers and students so that the proper institution can secure the budget and manpower and build a system to develop and operate the Saturday program.

Key words : *Efficient operation, Saturday program*

I. 서론

1980년대 초기의 '책가방 없는 날', '자율 학습의 날'을 필두로 하여 2004년에 전체 학교의 10%가 주5일제 수업을 월 1회 이상 시행하였으며, 2006년 이후에는 월 2회 이상 실시해 오다가

2012년 3월부터는 전국 대부분의 초·중등학교가 주5일제 수업의 전면적이 시행에 들어갔다. 주5일 수업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여가 문화 정립, 그리고 올바른 인간성을 갖춘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에 있다. 주5

[†] Corresponding author : 051-627-9326, cheolppyo@hanmail.net

일 수업제는 학습의 장을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 사회로 확대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학교교육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을 비롯한 사회·자연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휴일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바른 품성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부산에서는 주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 프로그램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관단체가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의 하나인 토요배움터에 등록된 부산시의 토요 프로그램은 최근 6년 동안 약 2,823개가 운영되고 있다. 부산시의 토요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일선학교 및 민간단체가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추진된 토요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참여율이 10%에 머무는 등 토요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배려가 교육을 받고 배워야 할 당사자인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이것은 토요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학생의 문제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토요 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능력이나 지적 수준은 지역별·학교별로 차이를 보이고, 흥미나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도심과 외곽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산하기관은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문화·예술분야도 지역적 편중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그러한 기관의 시설이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어린 학생들은 마음에 드는 토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토요 프로그램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이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토요 프로그램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시의 토요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부산 관내 소재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등을 탐색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학생들의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가. 중학교 학생들의 토요프로그램 참여율은 어떠한가?

나. 중학교 학생들의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다. 토요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주5일 수업제의 개관

가. 개념과 목적

주5일 수업제란 일주일에 5일만 학교에 등교하여 정규 교과수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5일 수업제는 학교에서 교과활동을 하고 1일은 가정과 사회에서 다양한 체험으로 학교 학습의 심화·보충하는 학교 운영방법이다. 주5일 수업제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임과 동시에 사회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며, 문화를 전승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사회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주5일 수업제는 단순히 수업일수가 6일에서 5일로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의 개념의 변화와 그 체제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주 5일 수업제는 학생들에게 주제적 학습능력과 자질을 길러주며, 더 나아가 가족과의 유대를

증진하며, 지역사회 체험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간상을 형성시켜주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방안이라 할 수 있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여러 놀이, 여가활동, 자연체험, 사회체험, 생활체험 등을 통하여 학교활동에서 배운 내용을 보다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는 지식습득 위주의 학력관에서 문제해결력, 창의성,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강조하는 학력관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단순히 많은 양의 지식 습득을 강조하는 학력관에서 사회변화에 대응력을 기르는 방향으로의 전환인 셈이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교육적·사회적 경험을 가정에 돌려준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다. 학생들에게는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교사에게는 과중한 수업부담에서 벗어나 교재연구와 자율연찬에 투입하게 하여 우리 교육에 활력을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또 학부모에게는 가족단위 여가문화가 확산되어 가족간의 유대를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1).

반면에, 제7차 교육과정의 주6일 수업, 연간 220일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체제를 주5일제 수업에 맞추기 위해 전반적으로 개편할 경우에 수업일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학기간의 단축, 평일수업 끼워 넣기 등 불가피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체험학습, 놀이시설, 문화시설 등 사회의 교육적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고 학부모의 주5일제 수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학생들에 대한 지도 공백을 초래하거나 또는 학원, 과외 등 사교육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주5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맞벌이 부부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학생들만 가정에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가정생활지도의 공백으로 인한 비행청소년의 증가, 학교 폭력 증가 등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나. 추진현황

2011년 6월에 정부는 2012학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 전면자율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주5일 수업제 시범운영 학교를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632개 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주5일 수업제 시행 중앙 추진단을 2011년 6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2011년 10월에 주5일 수업제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¹⁾하여 공포하고, 2012년 2월에 주5일 수업제 시행 대책 점검 및 국무회의 보고를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에 따라, 2012년 현재, 전국 대부분(99.6%)의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주5일 수업제를 모든 학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는 3,158(99.8%)개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며, 6(0.2%)개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월 2회 실시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2,263(98.6%)개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며, 33(1.4%)개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학교는 148(98.7%)개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며, 2(1.3%)개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월 2회 실시하고 있다. 전국 단위 모집학교, 기숙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은 부분적으로 실시하거나 실시를 하지 않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 토요 프로그램 운영지침

가. 기본원칙

2011년 6월 14일 정부는 2012학년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 주5일 수업제는 2005년 이후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월1회로 시작하여 2006년 2회로 확대 실시되어 왔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 정책에 따라 2012년부터 전면 실시를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매

1) 수업일수 주5일 기준으로 3단계(190일, 205일, 220일) 구분하여 자율선택

뉴얼은 일선 학교가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를 안내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해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으로 나누어 2011년 12월 15일에 제작하여 일선 교육청과 각 급 학교에 보급하였다.

운영매뉴얼의 전체 구성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5일 수업제의 도입 목적, 도입 절차와 관련법, 외국의 사례,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토요일 프로그램 사례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학생들의 토요일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조사, 안내문 등 각각 예시문을 포함하였다. 또한 토요일 프로그램 기획시 유형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다른 학교나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3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Q&A를 부록에 넣어 새로운 학교 운영에 대해 쉽고 간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편성의 경우, 현재 205일 안팎의 수업일수를 190~195일까지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수업일수는 줄지만, 수업시수는 줄지 않기 때문에, 주중 수업부담을 최소화하려면 학교장 재량 휴업일을 줄이고 여름과 겨울방학기간을 5~6일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나.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과 학교의 역할

학교는 주5일 수업제로 인해 생긴 줄어든 수업일과 늘어난 휴업일에 대해 모두 책임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명한 과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먼저, 줄어든 수업일에 대해서는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게 자주적인 편성을 하여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과만이 아니라 학교 행사 등 교과 외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학교 교육 전체 속에서 각각의 교육적 의미를 재검토하여

교육적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한다. 불필요한 준비과정을 축소하고, 방과후, 방학의 활용방법을 강구하며, 견학, 소풍 등의 기획을 학생 주도형으로 하면서 교과 학습과의 연계를 도모한다.

또한, 늘어난 휴일에 대해서는 우선 '누구도' 방치되지 않는 휴일이 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은 휴식과 여유로운 휴일보내기, 가족, 친지, 친구, 지역민과의 교류, 독서, 등산 등 다양한 취미, 문화활동, 스포츠, 예체능 활동, 다양한 체험활동, 부족한 공부 보완 등이다.

토요일 프로그램은 국가기관이나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전통문화시설, 자연체험장, 지역주민센터, 도서관 등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민간단체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이 많다. 학교는 다양한 토요일프로그램의 홍보처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토요일 휴일을 비롯한 주말에 어린이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지역의 자연생태축제, 생애학습페스티벌 안내, 어린이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자유롭게 스스로 놀게 하는 근린공원에서의 놀이 안내 등)를 담당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국가 교육과정의 운영원칙과 주5일 수업제에 따른 국가 정책

가. 국가 교육과정의 운영원칙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다. 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 지역의 특수성,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 교원, 학부모의 요구와 필요를 분석·검토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학교 교육과정에는 학교의 교육 목표,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어야 하고, 학교 교육의 중점, 교육의 기본 방향, 편제

와 시간 배당, 교과,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학교가 편성·운영한 학교 교육과정의 적합성, 효과성을 매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도를 조사하여 다음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 평가는 연 2회(학기말, 학년말) 실시하여 수정·보완하고 다음 학년도의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나.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국가 정책
2012학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는 지역별·학교별로 시행 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월2회 주5일 수업제 실시(2006년)에 따라 205일 내외로 운영되던 현행 수업일수가 2012년 이후에는 '190일 이상'으로 조정된다. 190일에는 교육과정기준 수업일수인 170일(34주×주5일, 교육과정기준 수업일수)과 20일의 학교장 재량 수업일이 포함된다. 또한 학교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일수를 16일에서 20일로 확대함으로써 주5일 수업으로 인해 우려되는 학습의 효율성 저하 문제 및 학습부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수업일수와 달리 총 수업시수는 현행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업시수가 그대로 유지된다(2011년부터 시행중인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미 주5일 수업제 시행을 전제로 수업시수를 결정하여 고시한 것임).

주5일 수업제의 시행에 따라 토요일의 돌봄 및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이 대폭 강화될 것이며, 토요 돌봄 교실을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고, 주중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각종 부처의 프로그램이 주말까지 확대 운영된다.

또한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의 문화·체육·예술 체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컨대 「토요 Sports Day」의 확대운영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기반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 등,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문화·체육·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적극 지원되고 시설들에서의 토요 프로그램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교육수요 흡수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 심화·보충 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 방과 후 학교 교과프로그램 운영도 활성화할 계획이며, 가정의 자녀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가족 봉사단' 운영, '학부모 생활지도 서포터단' 운영 등을 통해서 가족 단위, 동아리 단위의 봉사활동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4. 부산시의 토요 프로그램 운영 실태

가. 토요 프로그램의 종류

토요 배움터 토요 프로그램 사이트에는 부산시의 토요 프로그램의 종류, 프로그램명, 기관명, 주소, 운영기간, 시간 등에 관한 정보가 탑재되어 있다. 토요 프로그램의 종류를 내용에 따라 취미/오락, 교과학습, 인성체험, 스포츠, 생태체험, 음악, 외국어, 독서, 봉사활동, 무용, 자격증, 기타 등 12개로 분류할 수 있다.

토요 배움터 토요 프로그램 사이트에서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토요 프로그램의 종류를 기타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타로 분류하는 것을 그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면, 프로그램의 종류는 11개로 구분할 수 있고, 부산시 교육지원청의 2011학년도 하반기와 2012학년도 상반기 직속기관 및 지자체 토요 프로그램 목록에서는 토요 프로그램의 종류를 그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프로그램들을 내용에 따라 취미/오락, 교과학습, 인성체험, 스포츠, 생태체험, 음악, 외국어, 독서, 봉사활동, 무용, 자격

중 등 11개로 분류된다. 이와 같은 토요일 프로그램은 하나의 기관이 운영주체가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부 토요일프로그램은 동일한 기간에 유사한 내용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도 있다.

운영주체나 운영시간의 문제를 차제하고 지역사회가 실시하는 토요일 프로그램을 종류별로 분류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A kind of Saturday Program

Classification	frequency	%
Hobby/Culture	1059	37.5
sports	307	10.9
Learning Subject	295	10.4
Experience for humanity	275	9.7
Ecological experience	240	8.5
Music	187	6.6
a foreign language	147	5.2
Reading	143	5.1
volun-tary service	126	4.5
Dance	38	1.3
Qualification	6	0.2
합계	2823	100

나. 토요일 프로그램의 연도별 운영현황

부산시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토요일프로그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기 시작한 2006년에는 36개(1.3%)였으나, 토요일휴무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2012년에는 1,429개(50.6%)로 확대되었다.

<Table 2> The present state of each years of Saturday program in Pusan

Classification	frequency	%
2012	1,429	50.6
2011	495	17.5
2010	142	5.0
2009	167	5.9
2008	277	9.8
2007	277	9.8
2006	36	1.3
total	2,823	100

다. 토요일 프로그램의 지역별 운영 현황

지역별 토요일프로그램 현황을 보면, 해운대가 331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진구 328개, 동래구 295개, 금정구 246개, 북구 240개의 순이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100개 이상 200개 미만의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영도구(88개), 강서구(85개), 기장군(84개), 사하구(70개) 등은 100개 이하의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he present state of operation in each areas

Classification	Frequency	A percent
Haeundae-Gu	331	11.7
Jin-Gu	328	11.6
Dongrae-Gu	295	10.4
KumjounG-Gu	246	8.7
Book-Gu	240	8.5
스대-Gu	193	6.8
Sasang-Gu	182	6.4
Yeanje-Gu	168	6.0
Nam-Gu	132	4.7
Dong-Gu	130	4.6
Jung-Gu	127	4.5
Suyong-Gu	124	4.4
Youngdo-Gu	88	3.1
Kangseo-Gu	85	3.0
Kijang-gun	84	3.0
Saha-gu	70	2.5

라. 토요일 프로그램의 운영주체

2006년부터 2012년 4월 현재까지 6년간 부산시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주체별로 구분하면 <Table 4>와 같다. 부산시내의 토요일프로그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토요일 프로그램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토요일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가·지방자치단체로는 교육지원청과 산하기관이 385개,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이 1,571개, 국가기관은 62개의 토요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 민간단체가 운영하였거나 또는 운영 중인 토요일 프로그램은 805개였다.

이상에서 제시 내용에서 문제가 되거나 고려하

<Table 4> The present state of Saturday program by main operation bodies

Classification			Rate
A nation and self-governing body	education department	385	13.6
	self-governing body	1,571	55.7
	state organ	62	2.2
A private organization	a religious body	370	13.1
	A child·teenagers	178	6.3
	Sport·Dance	51	1.8
	Education	36	1.3
	Culture·Hobby	37	1.3
	A Play·Music	5	0.2
	A woman·culture	40	1.4
	Volunteer·Circumstance	58	2.1
The others	30	1.1	
Total		2,823	100

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토요 프로그램의 종류에서는 지적인 교과에 비해 비교적 교과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체험 활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토요 프로그램에서 기대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영역의 구분에서 본다면, 기초와 탐구 영역보다는 체육·예술 분야와 생활·교양,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분야가 토요프로그램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술과 관련된 활동이나 진로와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진로와 관련된 활동은 자신의 직업과 교육세계에 대한 폭넓은 탐색과 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태도 및 자기 주도적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이들에 대한 사항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영역에서도 진로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진로와 직업 등의 관련 지식과 이해를 돕

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지역별 현황에서 서부산 지역에 비해 동부산 지역²⁾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참여 기관도 많다는 점이다. 부산 지역은 동부산 지역과 서부산 지역의 교육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청과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교육기관의 지역 간 균형배치, 지역 간 학교 시설의 격차 해소, 지역간 교원의 격차 해소, 지자체에서 교육업무 전담 부서의 배치, 교육정책협의회의 활성화,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 확보 등이 그것이다. 부산에서 서부산 지역은 동부산 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규 교육을 행하는 부분에서도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심각성이 있는데, 토요 프로그램의 운영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요프로그램의 운영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토요프로그램의 운영 주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 체제의 구축을 고려하여야 한다. 토요프로그램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교육청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주체에서 지자체가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민간단체, 교육청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각 단체는 시설의 유지와 운영 등에서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운영 주체별로 차별화된 토요프로그램의 운영 모형이 요구되며, 인력의 제공이나 프로그램의 질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들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넷째, 인기 프로그램에서 안전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정규 교육과정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2) 부산에서 동부산 지역은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운대구, 수영구, 부산진구, 동구, 남구, 기장군, 서부산 지역은 강서구, 북구, 사상구, 서구, 중구, 영도구, 사하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안전 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법교과 학습주제로 다루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가정과의 연계 지도도 힘쓰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비록 토요 프로그램이지만, 정규 교과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기관과 프로그램에 치중되어 있어 이들 기관 으로서는 업무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보다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설문조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 중 서로 다른 구에 속해 있는 3개교의 학생들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해 배부된 설문지는 총 600장이며, 회수는 585장, 회수율은 98%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성의 없이 답한 학생들의 설문지를 제외한 569장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남자가 41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3.6%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여자는 150명으로 26.4%를 차지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00명으로 전체 응답의 17.6%를 차지하였고, 2학년이 265명으로 46.6%를 3학년이 204명으로 35.9%를 차지하였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토요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중학생들의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토요프로그램은 주5일 수업제 토요 배움터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내용에 따라 크게 취미/오락, 교과학습, 인성체험, 스포츠, 생태체험, 음악, 외국어, 독서, 봉사활동,

무용, 자격증 등 11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자료 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및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성별에 따라 관심분야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 통계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적 운영방안은 단순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가. 일반 사항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남자가 419명으로 전체응답자의 73.6%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여자는 150명으로 26.4%를 차지하였다.

현재 부산광역시와 교육청 및 각 단체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토요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되는 것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Table 5>과 같이 응답하였다.

<Table 5> The whole year operation of Saturday program Unit : Person(%)

Classification	Male	Female
Know well	64 (15.3)	10 (6.7)
Know	180 (43.0)	65 (43.3)
Know commonly	88 (21.0)	30 (20.0)
Don't know well	39 (9.2)	29 (19.3)
Know nothing	48 (11.5)	16 (10.7)
Total	419 (100.0)	150 (100.0)

남학생의 경우 매우 잘 알고 있다 15.3%, 알고 있다 43.0%, 보통이다 21.0%로 대부분 다양한 토요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매우 잘 알고 있다 6.7%, 알고 있다. 43.3%, 보통이다 20.0%로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토요일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남, 여 비율로 보았을 때 남학생은 79.3%, 여학생은 70.0%가 토요일프로그램의 연중 운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하여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토요일프로그램에 대한 흥미

응답자들에게 분류된 토요일프로그램 종류 중 가장 관심 있는 분야를 조사했을 때, 11개의 종류 중 스포츠 프로그램에 224명이 선택하여 39.4%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순위가 취미/교양 프로그램으로 187명이 선택, 32.9%로 나타났다.

다. 성별에 따른 관심분야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관심분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교차분석 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스포츠 프로그램에 가장 관심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취미/교양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취미/교양 프로그램에 관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음악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토요일프로그램 참여율

가. 토요일프로그램 참여경험

응답자들이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요일프로그램을 얼마나 참여하는지 알아본 결과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참여하는 학생들보다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비중이 약 70%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 학생들이 토요일 휴업일에도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토요일프로그램에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의 경우 64.7%가 토요일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여학생의 경우에도 80.7%가 토요일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Table 6> Experience participating to Saturday program Unit : Person(%)

Classification	Man	Woman
Participate every week	43 (10.3)	1 (0.7)
Participate sometimes	47 (11.2)	12 (8.0)
Participate commonly	58 (13.8)	16 (10.6)
Don't participate	119 (28.4)	60 (40.0)
Never participate	152 (36.3)	61 (40.7)
Total	419 (100.0)	150 (100.0)

나. 토요일프로그램 참여횟수

토요일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회 참여하였는지 조사한 결 <Table 7>와 같이 나타났다.

<Table 7> The number of participating times for Saturday program Unit : Person(%)

Classification	Male	Female
1-3 times	78 (53.0)	24 (82.9)
4-5 times	21 (14.3)	3 (10.3)
6-8 times	15 (10.2)	0 (0.0)
8-10 times	7 (4.8)	1 (3.4)
over 11 times	26 (17.7)	1 (3.4)
Total	147 (100.0)	29 (100.0)

남학생의 경우 1~3번 참여한 학생의 빈도가 53.0%, 11번 이상 참여한 학생이 전체의 17.7%, 4~5번 참여한 학생이 전체의 14.3%로 조사되었고, 여학생의 경우 1~3번 참여한 학생이 전체의 82.9%, 11번 이상 참여한 학생은 3.4%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토요일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횟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프로그램 운영주체

현재 토요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는 다양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어느 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가장 많은지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던 토요일프로그램의 운영 주체는 부산광역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민간단체, 교육지원청,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토요일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 중 잘모르겠다는 응답이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토요일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어느 곳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잘 인지하지 못한 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토요일프로그램 만족도

가. 토요일프로그램 만족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토요일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보통이다 53.2%,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5.5%, 불만족이다 17.9%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보통이다 65.3%,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7.3%, 불만족이다 14.0%로 나타나 남학생, 여학생 모두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토요일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Satisfaction about Saturday program of the P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Unit : Person(%)

Classification	Male	Female
Satisfaction much	29 (6.9)	10 (6.7)
Satisfaction a little	69 (16.5)	10 (6.7)
Satisfaction normally	223 (53.2)	98 (65.3)
Satisfaction not much	23 (5.5)	11 (7.3)
No satisfaction	75 (17.9)	21 (14.0)
Total	419 (100.0)	150 (100.0)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토요일프로그램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보통이다 54.4%,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5.0%, 불만족이다 17.9%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보통이다 70.7%,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4.0%, 불만족이다 14.0%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전체의 77.3%가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토요일프로그램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전체의 88.7%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 여학생 모두 토요일프로그램에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Satisfaction about Saturday program of organized bodies Unit : Person(%)

Classification	Male	Female
Satisfaction much	20 (4.8)	8 (5.3)
Satisfaction a little	75 (17.9)	9 (6.0)
Satisfaction normally	228 (54.4)	106 (70.7)
Satisfaction not much	21 (5.0)	6 (4.0)
No satisfaction	75 (17.9)	21 (14.0)
Total	419 (100.0)	150 (100.0)

나. 교육수준

토요일프로그램에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 토요일프로그램의 교육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Table 10>과 같이 조사되었다.

<Table 10> The level of education Unit : Person(%)

Classification	Male	Female
Very high	8 (5.4)	1 (3.4)
High	36 (24.5)	5 (17.2)
Normal	84 (57.1)	20 (69.1)
Low	6 (4.1)	2 (6.9)
Very low	13 (8.8)	1 (3.4)
Total	147 (100.0)	29 (100.0)

남학생의 경우 보통이다가 57.2%, 교육수준이 낮다가 4.1%, 교육수준이 매우 낮다가 8.8%로 나타나 남학생 전체의 70.1%가 토요일프로그램의 교육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69.1%가 교육수준이 보통이다, 6.9%가 교육수준이 낮다, 3.4%가 교육수준이 매우 낮다고 응답하여 전체 여학생 중 79.4%가 토요일프로그램의 교육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교육내용

참여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토요일프로그램 교육내용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보통이다 37.4%,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5.4%, 불만족이다 10.2%로 전체 남학생의 53%가 토요일프로그램 교육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에도 보통이다 55.3%,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3.4%, 불만족이다 6.9%로 전체 여학생의 65.6%가 토요프로그램 교육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Satisfaction about contents of education of Saturday program Person :person(%)

Classification	Male	Female
Satisfaction much	26 (17.7)	3 (10.3)
Satisfaction a little	43 (29.3)	7 (24.1)
Satisfaction normally	55 (37.4)	16 (55.3)
Satisfaction not much	8 (5.4)	1 (3.4)
No satisfaction	15 (10.2)	2 (6.9)
Total	147 (100.0)	29 (100.0)

라. 토요 프로그램 강사 수준과 기준

토요프로그램의 강사 수준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Table 12>와 같이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보통이다 33.3%,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6.1%, 불만족이다 9.5% 순으로 응답하여 토요프로그램의 강사 수준에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도 보통이다 62.1%, 불만족이다 6.9%로 남, 여 모두 토요프로그램 강사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2> Teachers' ability for Saturday program Unit : Person(%)

Classification	Male	Female
Satisfaction much	32 (21.8)	1 (3.4)
Satisfaction a little	43 (29.3)	8 (27.6)
Satisfaction normally	49 (33.3)	18 (62.1)
Satisfaction not much	9 (6.1)	0 (0.0)
No satisfaction	14 (9.5)	2 (6.9)
Total	147 (100.0)	29 (100.0)

토요프로그램 강사로 어떤 사람이 강의를 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남학생의 경우 각 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문가가 26.4%로 가장 많았고 강사경력이 오래된 사람, 유명인사가 22.4%로 그

뒤를 이었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각 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문가가 31.3%로 가장 많았고 강사경력이 오래된 사람, 유명인사가 21.3%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각 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전문가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토요 프로그램 운영 방안

가. 참여독려방안

응답자의 약 70%가 토요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원인을 조사하였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위해서가 36.1%, 학과 공부보충을 위해서 16.0%, 학교 및 학원 숙제를 하려고 11.7%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에도 개인적인 취미활동을 위해 26.7%, 학과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23.3%, 학교 및 학원 숙제를 하려고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에게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독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40.1%, 참여시설 확대 17.4%, 수행평가 점수 반영 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48.7% 참여시설 확대 21.3%, 수행평가 점수 반영과 적극적인 홍보가 각각 12.0% 등의 순으로 나타나 남, 여학생 모두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 운영 방안

지역사회 토요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운영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프로그램이 모두 무료화 되어 학생들의 부담이 적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전체 중 30.4%를 차지하였고, 2순위로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26.2%를 차지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점수화 방안에 대해서는 <Table 13>과 같이 조사되었다.

<Table 13> A plan to make evaluating system for participating the program

Unit : Person(%)

Classification	Male	Female
Very effective	42 (10.0)	6 (4.0)
Effective a little	64 (15.3)	24 (16.0)
No idea	146 (34.9)	64 (42.7)
rarely effective	37 (8.8)	13 (8.6)
No effectiveness	130 (31.0)	43 (28.7)
Total	419 (100.0)	150 (100.0)

남학생은 잘 모르겠다 34.9%, 조금 효과적이다 15.3%, 효과적이지 않다 31.0%로 나타났고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는 효과적이지 않다가 39.8%, 매우 효과적이다 또는 조금 효과적이다가 25.3%로 부정적 의견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잘 모르겠다 42.7%, 조금 효과적이다 16.0%, 효과적이지 않다 28.7%로 나타났고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37.3%, 매우 효과적이다 또는 조금 효과적이다는 의견이 20.0%로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토요일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남학생의 경우 흥미위주의 내용이 52.5%로 과반수이상인 흥미로운 교육내용이어야 효율적으로 토요일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도 54.0%의 높은 빈도로 흥미위주의 내용을 선택하여 남, 여학생 모두 토요일프로그램의 교육내용이 흥미로운 교육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중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많아지길 원했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본 연구는 전면적인 주5일 수업의 시행과 더불어 부산광역시의 토요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해 조사하고 토요일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모색하기 위함이다.

현재 부산의 경우 지자체나 교육청 및 민간단체의 주도로 11개 종류의 프로그램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최근 6년간 2,800여개)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의 토요일 프로그램은 주체별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며, 프로그램의 운영 기관간의 특화, 교육과학기술부나 재능기부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인력풀 확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확보, 권역별 지역사회의 토요일프로그램 자원의 확보와 자원의 연계 등의 다양한 체제의 마련이 요구되거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부산의 경우 주5일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5일 수업제 시행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토요일 스쿨 인력풀 및 안전망의 구축, 체계적인 연수와 홍보의 실시, 토요일 배움터 홈페이지 활성화 등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토요일배움터에서는 회원가입을 하고, 토요일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토요일프로그램의 활성화와 더불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그러나 토요일 프로그램의 구체적 운영에서는 지역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토요일프로그램의 요구를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이들 요구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체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함으로써, 정규 교육뿐만

아니라, 토요 프로그램까지 지역별 격차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교육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5일 수업으로 인한 토요 프로그램의 운영이 또 다른 교육에서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중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효율적 방안을 탐색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토요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참여를 많이 하지 않는 학생들이 절대 다수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의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은 물론,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학생들의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수집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산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요구에 맞는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도 및 지원하는 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필요하다면 민간단체로 하여금 학생요구에 맞는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알선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 참여를 하지 않은 학생들의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학생들이 보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학습능력이나 지적 수준은 지역별·학교별로 차이를 보이고, 흥미나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도심과 외곽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나 교육지원청의 산하기관은 지역적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문화·예술분야도 지역적 편중현상이 심한 상황에서 그러한 기관의 시설이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어린 학생들은 마음에

드는 토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토요 프로그램의 참여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토요 프로그램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여 학생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학생 스스로가 참여하고 싶은 토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 토요프로그램의 나열에 의한 수요자 선택권 부여의 방식에서 수요자 요구형 토요 프로그램의 개발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 때 수요자 요구형이란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담당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토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요구할 수도 있고, 토요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 또는 동아리 차원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토요 프로그램의 운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교사나 학생이 요구하는 토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새로운 토요 프로그램일 수 있다.

토요프로그램 지원센터는 교사나 학생의 토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사회가 운영하는 토요 프로그램과 연결시키거나 또는 새로운 토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새로운 토요 프로그램은 예산과 인력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내용의 전문성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토요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나 그 산하기관의 업무영역과 관계되기도 하고 교육지원청과 그 산하기관의 업무영역과도 관계가 된다. 이 때문에 교육지원청 산하의 토요프로그램 지원센터는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토요프로그램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사 및 학생이 요구하는 토요 프로그램이 어떤 기관의 업무영역인지를 판단하여 해당기관에서 예

산 및 인력을 확보하고 토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

Bae, Hyun-joo(2008). A Survey of the Elementary Students' Recognition of Off-school Saturday Activiti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Jeong, Mae-Hwa(2006). Situations and Problems of a Five-Day School Week System, Gyeon-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 thesis.

Kim, Chang-sick(2012). State of Leisure Activities and Concern for Leisure Programs and Facilities among Secondary Students in the Five-Day Schoolweek : the case of the city of Gimhae,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aya University master thesis.

Kim, Eun-sook(2007). Secondary Students' Perception of Off-Class Saturday Activitie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Kim, Hui-Jeong(2005). Investigating the Saturday Program of a Special Education School, DanGuk University master thesis.

Park, Seong-Kwae · Cha, cheol-Pyo · Gong, ra-kyong · kun, Hwek-Jun(2010). Economic vitalization of Yongdo-Dongsam(hari) region through residents' participation, Youngnam seagrant

-
- 논문접수일 : 2013년 03월 11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3년 04월 06일
2차 - 2013년 04월 08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4월 11일